日本書紀에서 찾아본 스모(相撲)에 관한 연구*

주동진**

〈차 례〉

1. 서 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2. 日本書紀에 나타난 相撲연구
  1) 捔力경기와 경기자
  2) 여성 경기로써의 相撲
  3) 제의와 공연적 성격을 지닌 相撲
  4) 隼人경기로써의 相撲
  5) 相闘에 대하여
3. 결론

【국문초록】

스모(相撲; Sumo)는 일본을 대표하는 傳承 스포츠로서 일본의 역사와 혼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일본인들은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스모에 대한 고대연구가 많지 않다. 일본 최고의 민족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음은 어떤 이유일까? 스모란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日本書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A2A01018045)

** 영남대학교

紀는 상당한 양의 說話가 기록되어 있어 설화적 상상력을 동원하여야 당시 사람들의 삶과 사유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 책은 적지 않은 歪曲과 潤色도 있다. 그리고 이 책에는 고대 한국과 관련된 기록이 상당히 많다. 따라서 일본서기를 통한 스모연구는 한국 씨름과 한국 역사를 살피는 계기도 된다. 특히 우리 씨름의 정체성 확립과 비교(국제)체육학의 발판이 된다. 이 연구는 일본서기의 全文을 통해 글자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세심히 검토한 忍苦의 고통이 있었다. 연구결과는 스모역사와 한국씨름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日本書紀, 相撲, 力士

1. 서 론

1) 연구의 목적

일본서기(日本書紀; にほんしょき)는 스모(相撲; すもう)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일본의 史書이다. 그러나 이 책은 상당수의 說話가 기록되어 있어 설화적 상상력을 동원하여야 당시(고대인)의 삶과 사유방식을 엿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서책은 적지 않은 歪曲과 潤色도 또한 지니고 있어 당시 주변정세(한국과 중국 등)를 잘 살펴보고 판단해야 한다. 그러므로 일본서기를 통한 연구는 주변 국가의 역사와 일본 전통문화의 지식을 겸비하고 접근해야 한다.

日本書紀에서 스모(相撲)문화를 연구하는 것은 상당한 인내력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스모에 관한 전통이 생기기 전의 史書이기 때문에 기록된 문자 하나하나를 세세히 검토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필요하다. 즉 스모와 관련된 글자 一字라도 간과할 수 없으며 스모와 관련한 기본적인 문장과 관련 철자풀이는 물론, 의미론적 용어와 그 해석까지 알아보아야 비로소 연구의 가치가 있다.

이 연구는 먼저 스모(相撲)와 관련된 용어와 문장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아래의 연구과제들을 해결하려 한다.

첫째, 일본서기의 '스모(相撲) 관련 첫 용어'인 '捔力'에 대하여 고찰한다. 이것은 이 용어와 관련한 경기내용과 제례의식과의 관계도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相撲이란 스모용어가 '女性의 경기'로써 처음 등장하는데 이에 대하여 알아본다. 그리고 오늘날 일본에서 여성 스모를 배척하는 이유를 살펴본다.

셋째, 隼人(はやと; Hayato)들의 相撲을 통해 단체경기와 개인경기를 알아본다. 왜냐하면 隼人들의 相撲은 日本書紀에서 단체경기와 개인경기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유희와 관람경기로써의 相撲을 분류해 본다. 일본서기에서 相撲경기는 유희적 모습과 관람적 형태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相撲과 관련한 力士와 勇士, 즉 일본서기에 나오는 경기자의 명칭에 대하여 살펴본다.

여섯째, 相闘의 의미적 해석을 통하여 이 용어가 相撲 혹은 이와 관련한 용어인지 고찰한다. 왜냐하면 이 용어는 相撲이라는 스포츠문화가 나오기 전, 즉 일본에서 相撲의 전통문화가 생기기 전의 것이므로 相撲문화와 관련된 용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일본 씨름, 相撲에 대한 연구이지만 우리 한국의 씨름 연구를 위한 전초연구로써 시작한 것이다. 相撲과 같은 이웃나라의 체육문화를 연구하는 것은 우리 씨름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국제(비교)체육문화를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

2) 연구방법

日本書紀는 大和記(やまとぶみ)라고도 부른다. 太古의 이야기부터, 즉 神代부터 持統天皇(재위, 690년-697년) 697년까지 기술되어 있다. 720년 天武天皇(재위, 673년-686년)의 명으로 舍人親王들이 편찬하였고, 일본의 六國史 중에서도 첫 번째이며 현존하는 일본 最古의 正史이다. 한문 편년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 30권, 계도 1권이며, 계도는 현재 없다(참조, 위키백과).

六國史는 황실의 명을 받고 887년까지 편찬된 6권의 역사 서적이다. 일본서기는 "舍人親王이 元正天皇의 명을 받들어 편찬한 역사서이다. … 고사기는 천황에 의한 소규모 편찬서임에 비해 일본서기는 여러 가지 자료를 기초로 한 국가적 편찬사업이었다(최정선, 2005: 26)." 따라서 일본서기는 역사기술을 통해 천황의 존립근거를 마련하고 천손의식을 구체화하는 도구이자 천황과 신을 연결하는 징검다리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본서기는 고사기의 신화를 포함하면서 다양한 전승들을 병기(倂記)하고 있다.

"일본서기에는 상당수의 설화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국토의 기원과 역사, 황실과 중앙 및 지방 씨족과의 혼인관계의 기원과 역사, 그 지방의 지배기원 등이 설화의 주요 내용이다. 이 가운데 신과 관련된 다분히 국가적 차원의 공적인 기록임을 증명하는 이야기 이외에도, 설화적 상상력으로 고대 사람들의 애정관, 인간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상징적 이야기들도 적지 않다(최정선, 2005: 26-27)." 이러한 이유로 "일본서기는 적지 않은 왜곡과 윤색을 하였던 것(최재석, 1999: 49)"이 엿보인다. 이에 대하여 박창기(2008: 475)는 "주변국과의 대결의식 속에서 야마토 조정의 위업을 드러내고자 편찬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일본서기는 天皇家의 정체성과 역사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사업으로 편찬되어 정치적 경향을 띠고 있다. 따라서 일

본서기를 史書로써 연구할 때는 한국과 중국의 고대 史料를 동시에 비교하면서 검토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한자어로 표기를 하고 있지만 같은 글자도 달리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일본서기를 통하여 연구하는 것은 역사적 지식과 시대적 감각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먼저 지금까지 알려진 스모(相撲) 관련용어(한국・중국・일본의 고대 씨름 용어)를 찾고 다음으로 당시에는 또 다른 용어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유사 혹은 관련 용어들을 살펴본다. 또한 당시의 相撲관련 용어들은 어떤 의미로 사용하였으며 혹은 또 다른 어떤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지, 등에 대하여 다양한 각도로 그 의미의 분석을 시도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일본서기에 나타난 相撲문화, 즉 경기내용과 용어 등을 살펴보는 문헌연구이다. 따라서 일본서기를 텍스트를 삼고 후대의 연구물 혹은 다른 史料들은 2차 자료로 두고 비교・검토하여 진행한다.

일본서기는 그 기록이 모두 한자어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용어해석에 있어서 학자들 간의 견해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학자들의 의견이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경우는 주를 달아 설명한다. 또한 철자 검색에서 관련용어를 빠뜨리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스모와 관련된 모든 漢字를 한 글자(一字)씩 검토하여 분석한다. 이러한 이유는 고대에 있어서 한국의 씨름은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한자어를 사용하는 일본도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서기에서도 相撲이 다른 용어로 표기되어 있지 않았을까하는 의문을 두고 다음과 같이 한국과 중국에서 사용되었던 고대 씨름 유사용어들을 일본서기의 全文에 대입하여 검색하였다.

다음은 현재까지 알려진 스모(한국・중국・일본의 씨름)과 관련한 유사용어를 일본서기에서 모두 대입하여 찾아보았다. 그 대입용어들은 다음과 같다.

□ 스모관련용어 검색어 : 角校, 角技, 角技藝, 角力, 捔力, 角力戱, 殼抵, 脚觝, 角抵, 角觝, 角觝戱, 角抵戱, 角支, 角鬪, 脚戱, 脚力, 角戱, 角礫, 高麗技, 穀抵, 拳搏, 拳勇, 技巧, 都結局, 撩骰, 搏法, 博戱, 百戱, 相搏, 相撲, 相擗, 相抵触, 手搏, 手撲, 撓跤, 勇力, 肉搏, 爭交, 爭校, 爭力, 蚩尤戱, 摔角, 摔校, 摔跤, 幻術, 競力, 白打, 拳搏, 拳術, 喬相撲, 抵觸, 相鬪.

□ 경기자 검색용어: 力士, 勇士, 健兒, 抵人

※ 밑줄 친 용어는 일본서기에 나오는 용어임.

일본서기 全文에 대입하여 찾아낸 相撲 유사용어는 捔力이 1곳, 相撲이 4곳, 총 5곳이었다. 그리고 相撲경기와 관련된 참가자를 力士(1곳)와 勇士(같은 장 1곳, 다른 곳 3곳)로 구분하고 있었다. 따라서 力士와 勇士의 의미를 검토하면서 이 연구를 풀어본다. 또한 일본서기에는 相鬪란 단어가 여러 군데 등장하였는데, 2곳이 相撲으로 대치하여도 무리가 없으므로 이 연구는 相鬪가 고대 상박의 유사단어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면서 이에 대한 해석도 시도한다. 그리고 이 연구는 일본서기의 순서(연대별)대로 연구한다.

텍스트인 일본서기 원본은 일본문학전자 도서관(http://www.j-texts.com)에서 제공하는 『朝日新聞社本 日本書紀』를 사용하였고, 번역을 위해서 田溶新(2002, 일지사)의 『완역 일본서기』를 중심으로 여러 번역들을 비교 검토하여 이상이 없도록 한다. 번역본의 예를 들면 한국어판 성은구(1987, 고려원)의 『일본서기』와 일본어판 小島憲之・西宮一民・毛利正守・直木孝次郎・藏中進(1994, 小學館)의 「新編 日本古典文學全集 2」의 『日本書紀 1』과 같은 저자들(1994, 小學館)의 「新編 日本古典文學全集 3」의 『日本書紀 2』 등이 그것이다.

2. 일본서기에 나타난 相撲연구

1) 捔力경기와 경기자 : 垂仁天皇 七年(기원전, 23년)

기원전 23년, 제11대 垂仁天皇 7년에 다음과 같은 기사내용(일본서기 6권)이 있다.

垂仁天皇 7년 7월 7일(기원전 23년)

좌우가 주상하여 "当麻邑에 용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위인이 힘이 세어 뿔을 부러뜨리고 굽은 낚시를 폅니다. 항상 여러 사람에게, '사방에 구하여도 나만큼 힘이 있는 자가 있겠는가. 어떻게 하여서라도 장사와 만나, 사생을 걸고 힘을 겨루어 보겠다.'라고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天皇이 듣고, 군영에 詔하여, "朕은 当麻蹶速이 천하의 力士라는 것을 들었다. 이 사람과 필적할 사람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신하 하나가 나와서. "신이 出雲國에 勇士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野見宿禰라 합니다. 시험 삼아 이 사람을 부르시어, 蹶速에게 붙여 보았으면 합니다."라고 하였다. 즉일로 倭直의 선조인 長尾市를 보내, 野見宿禰를 불렀다. 그래서 野見宿禰가 出雲國에서 왔다. 当麻蹶速과 野見宿禰와 捔力을 시켰다. 두 사람이 상대하여 섰다. 각각 다리를 들어 서로 밟고 찼다. 当麻蹶速의 늑골을 부러뜨렸다. 또 그 허리를 밟아 꺾어 죽였다. 그래서 当麻蹶速의 땅을 뺏어, 모두 野見宿禰에게 주었다. 이것은 그 읍에 腰折田이 있는 연유다. 野見宿禰는 머물러 곁에서 섬기게 하였다(참고: 田溶新, 2002:111～112)[1].

---

1) 日本書紀 卷第六, 《垂仁天皇七年（戊戌前二三）七月乙亥（七）》七年秋七月己巳朔乙亥。
左右奏言。当麻邑有勇悍士。曰当麻蹶速。其爲人也。强力以能毁角申鉤。恒語衆中曰。於四方求之。豈有比我力者乎。何遇强力者。而不期死生。頓得爭力焉。天皇聞之。詔群卿曰。朕聞。当麻蹶速者天下之力士也。若有比此人耶。一臣進言。臣聞。出雲國有勇士。曰野見宿禰。試召是人。欲当于蹶速。卽日、遣倭直祖長尾市、喚野見宿禰。於是。野見宿禰自出雲至。則当麻蹶速与野見宿禰令＝［手偏＋角］力。二人相對立。各擧足相蹶。則蹶折当麻蹶速之脇骨。亦蹈折其腰而殺之。故奪当麻蹶速之地。悉賜野見宿禰。是以其邑有

이 내용을 요약하면 当麻邑 출신의 다이마 노케하야(当麻蹶速)가 자신의 힘이 최고라고 자랑을 하고 있었다. 이에 천황이 군영에 명하여 当麻蹶速의 오만(傲慢)함을 꺾을 자를 찾았는데, 出雲國 출신의 노미노 스쿠네(野見宿禰)를 추천했다. 두 사람이 경기를 가졌는데 이들은 다리를 들어 서로 차는 것이었다. 결국, 野見宿禰가 当麻蹶速의 늑골을 부러뜨리고 허리를 밟아 죽였다.[2] 천황은 当麻蹶速의 땅을 野見宿禰에게 주었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읍에 腰折田이 있게 된 연유이다. 그리고 野見宿禰는 천황의 곁에서 천황을 섬겼다는 것이다.

(1) 力士와 勇士의 용어에 대하여

이 내용은 천황의 대항세력 혹은 오만한 장사를 천황이 직접 다스렸다는 내용이며 스포츠의 승부처럼 영원한 승자가 없는 것을 일깨우는 하나의 일례로 볼 수 있다. 여기서 힘을 뽐내다가 捔力으로 목숨을 잃은 当麻蹶速는 力士라고 표기하였고 勇士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 즉 当麻蹶速는 力士였고 野見宿禰는 勇士였다. 현재 相撲경기에서는 相撲선수들을 力士라고 하며 勇士라고는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勇士와 力士는 다르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史料의 捔力경기에서 力士와 勇士가 싸워 勇士가 승리하였다고 기록하였다. 이것은 서로 다른 종목의 경기자가 경기를 하는 오늘날 이종격투기와 비슷하며 그 중에서 '넘어졌는데도 허리를 밟아 죽였다'는 것은 MMA(MIXED MARTIAL ARTS)방식의 경

腰折田之緣也。野見宿禰乃留仕焉。(朝日新聞社本 日本書紀, 日本文學電子圖書館)

2) 이에 대하여 송일훈・이동헌・손수범(2006:90)은 "초기의 스모(相撲)는 쟁력(爭力)과 각력(角力)으로 상대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을 생사의 수단"으로 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기, 즉 그래플링(Grappling)이다. 그렇다면 力士와 勇士는 어떻게 다르며 왜 용어를 달리 표기하였을까? 이 문헌에서 알 수 있는 것은 力士는 힘을 쓰는 일반 장사이며 勇士는 군영에서 찾은 군인으로써 다양한 합기술을 구사하는 戰士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역사는 힘이 세고 나름대로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勇士는 군인으로써 다양한 合技術의 능력을 가진 자라고 볼 수 있다. 굳이 설명한다면 力士는 씨름이나 유도 부류의 선수, 勇士는 격투기나 합기도 류의 武人에 비유된다고 판단된다.

일본서기의 문헌에 기록된 이때의 捔力은 手搏이 아니며 그렇다고 오늘날의 스모(相撲)와 같은 형태라고도 볼 수 없다. 문헌기록으로 보면 주로 발로 하는 경기로 해석된다. 그렇다고 발로만 하였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태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발로 차여 늑골이 부러졌다.' 또 '발로 밟아 죽였다.'는 것은 유희보다는 승부에 대한 강한 욕심을 가진 혈투적인 경기임은 틀림없다.

(2) 장례의식과 相撲

일본서기에서 当麻蹶速와 野見宿禰의 직업이 모두 장례와 관련되어 있어 이를 주목하여 살펴보면 "當麻씨는 분묘지인 二上山의 동쪽 기슭에 살며, 도회에서 운반되어온 귀인의 관에 최후의 진혼의식을 베푸는 일을 생업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宿禰는 土師氏의 14대째가 되는데, 土師氏는 그의 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장례식과 관계하게 되었다. 결국, 垂仁천황의 황후인 日葉酢姫가 죽었을 때, 宿禰는 그때까지 귀인의 장례식의 습관인 순사를 폐지하고 대신에 埴輪를 이용하는 것을 천황께 진언하여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했다(寒川恒夫, 1993:45)"

寒川恒夫(1993:50)는 '葬礼相撲の系譜 寒川恒夫' 연구에서 "일본

서기의 조문과 고분출토의 역사 인형의 존재는 고대 일본 지배층에서는 장례식 때 스모를 중요한 예법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다." 고 하면서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걸친 많은 무덤의 유물을 통해 본 결과 스모(相撲)는 장례와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3] 또한 우리나라 高句麗 墳墓(중국의 吉林省 集安縣의 角觝塚과 舞踊塚 그리고 長川一號墳, 북한 황해도 안악군 유순리의 安岳3號墳)의 예를 들어 相撲은 장례의식과 관계가 깊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禮記(중국 고대 儒家의 五經의 하나로써 禮法의 이론과 실제를 풀이한 책)에는 角力이란 용어가 등장한다. 여기서 각력은 활(射)쏘기와 말(御)타기와 함께 앞에서 설명한 勇士가 아닌 力士(禮記에는 將師라고 표기되어 있음)들의 무예(武)를 위한 일종의 수련(講) 형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4] 즉 詩經에서 의미하는 권(券)과 그 의미가 다르고(詩經의 小雅 無拳無勇職爲亂階) 孟子의 박(博 : 孟子 卷十四 盡心章句下 手執曰搏)과도 다른 유희적 힘겨루기라고 판단된다. 公羊傳(春秋公羊傳; 중국 戰國時代 齊나라 公羊高의 春秋 注釋書)에 宋閔公이 모욕하자 南宮長萬은 搏法을 사

3) 寒川恒夫는 일본서기의 조문과 고분출토의 역사인형의 존재가 고대 일본 지배층 장례 때 스모를 중요한 예식으로 삼았다고 하였다. 이 내용은 다음과 같다. "大阪府の晝神軍塚古墳と舳松南高田遺跡、和歌山縣の井辺八幡山古墳と大谷山22号墳、靜岡縣の陳內平三号墳、埼玉縣の酒卷十四号墳, 群馬縣の芝宮七十九号墳と保渡田Ⅶ号墳、茨城縣高津天神山古墳と石神小學校古墳、福島縣の平山一号墳、それに石川縣からは力士埴輪が出土している。また、兵庫縣の西宮山古墳と島根縣のめんぐろ古墳、それに岡山縣からは相撲をとっている2人の力士像を備えた須惠器が出土している。さらに福山縣の岩戶山古墳からは石製の力士像が出土している。これらはすべて、5世紀後半から6世紀にかけてのものである。以上、『日本書記』の條文と古墳出土の力士人形の存在は、古代日本の支配層においては葬儀に際し相撲とることが重要な礼法であったことを考えさせる(寒川恒夫, 1993:50)."

4) 禮記 王制篇 55 月令 : 是月也, 命工師效功, 陳祭器, 按度程, 毋或作爲淫巧以蕩上心. 必功致爲上. 物勒工名, 以考其誠. 功有不當, 必行其罪, 以窮其情. 是月也, 大飮烝. 天子乃祈來年於天宗, 大割祠於公社及門閭. 臘先祖五祀, 勞農以休息之. 天子乃命將帥講武, 習射禦角力.

용하였고, 仇牧이 검을 가지고 나타나자 머리를 박살냈다는 기록이 있다.[5] 여기서 나오는 권(券)이나 박(搏 혹은 搏法)은 무사 혹은 전사들의 무예로 판단되지만, 여러 문헌들을 통해 본 결과 일본서기에 기록된 捔力은 그 보다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日本 史書에 기록된 대부분의 相撲은 武士들의 무술이나 戰士들의 생사를 건 육박전과는 그 양상이 다른 오늘날 스모(相撲)와 같은 유희적 경기와 비슷한 류(類)라고 판단된다.

手搏이나 券 혹은 博이 들어있는 것은 勇士나 戰士들이 주로 사용하였으며, 相撲이나 捔力 등은 일반인들(力士나 청소년 그리고 여성까지)도 즐겼던 놀이형태로 유희적으로 발전 및 흥행하였다고 推論할 수 있다. 이 내용은 다음 장에서 추가 설명한다.

2) 여성 경기로써의 相撲 : 雄略天皇 十三年(469년)

스모, 즉 相撲이란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일본서기 14권의 雄略天皇 十三年(서기 469년) 9월의 기록이다. 相撲이란 단어가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다. 이 내용은 특이하게 女性과 관련되어 최초로 등장한다.

> 雄略天皇 13년 9월 9일(서기 469년)
>
> 木工 猪名部眞根이 돌의 받침대로 하여 도끼를 휘둘러 재목을 깎았다. 종일 깎아도 실수하여 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었다. 天皇이 그곳에 가서 이상히 여겨 '돌에 잘못 맞추는 일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眞根이 대합하여 '잘못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采女를 소집하여 의복을 벗기고 아랫도리만 가린 잠방이(훈도시) 차림으로 사람이 보는데서 相撲를 하게 하였다. 眞根은 잠시 멈추고, 쳐다보면서 깎았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손이 잘못하여 날이 상하였다. 天

5) 公羊傳 : 宋國大臣南宮長萬性情剛烈 宋閔公侮辱了他 他盛怒難遏 使用搏法扭斷了閔公的脖子 大臣仇牧執劍起來救助 長萬側手一擊 便打碎了仇牧之頭

> 皇이 책하여 '어디에 있던 놈인가. 朕을 무서워하지 않고, 부정한 마음으로 망녕되이 경솔하게 답하였는가?'하고 하였다. 物部에 넘겨 들판에서 처형하게 하였다. 공장의 동료들이 眞根을 한탄하고 아껴서 노래를 불렀다(참고: 田溶新, 2002: 249).[6]

이 내용을 요약하면 목공 猪名部眞根이 자신의 능력만 믿고 오만에 빠져, 雄略天皇 앞에서도 절대 실수가 없다고 호언장담을 하였다. 이에 천황은 궁녀(采女)들에게 아래 속옷(犢鼻: 오늘날 훈도시 같은 것)만 입혀 상박을 하게 하였고, 목공 眞根는 궁녀들이 팬티만 입은 모습으로 相撲을 하는 것을 보다가 실수를 하였다. 이에 천황은 眞根이 자신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을 한다고 하여 처형시켰다. 이에 眞根의 동료 목공들이 그의 죽음을 안타까이 여겨 노래를 지어 불렀다는 것이다. 천황 앞에서 오만한 태도를 보여, 이에 천황은 처벌(죽음)을 내렸다. 이러한 내용은 이전시대 垂仁天皇 때 자신의 힘을 믿고 氣高萬丈하다가 결국은 勇士(野見宿禰)에게 죽음을 당한 力士(当麻蹶速)의 이야기와 같은 맥락이다. 즉 자신의 능력을 믿고 방자(放恣)한 태도에 분노한 천황은 일종의 시험을 내고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처형시켰다는 내용이다.

이 부분에서 相撲문화의 특별한 것은 당시 여성들도 相撲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相撲용어의 첫 등장이 여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여성배타적인 현상이 존재하는 오늘날 일본 스모(相撲)문화와 달리 당시 여성이 직접 스모(相撲)를 하였다는 명확한 기술이 있다. 따라서 여성 相撲에 대한 배타적인 현상에 대하

---

6) 日本書紀 卷第十四 《雄略天皇十三年（己酉四六九五）九月》秋九月。
木工猪名部眞根以石爲質、揮斧＝材。終日＝之、不誤傷刃。天皇遊詣其所。而怪問曰、恒不誤中石耶。眞根答曰。竟不誤矣。乃喚集采女。使脫衣裙而著犢鼻、露所相撲。於是。眞根暫停。仰視而＝。不覺手誤傷刃。天皇因嗔讓曰。何處奴。不畏朕。用不貞心、妄輒答。仍付物部、使刑於野。爰有同伴巧者。歎惜眞根、而作歌曰。(朝日新聞社本 日本書紀, 日本文學電子圖書館)

여 선행연구들을 검토해 보았다.

(1) 여성금제의 이유

구니이 유타카(2010)는 「스모(相撲)에 있어서의 여인금제(女人禁制)에 관한 고찰」에서 “스모협회는 도효의 여인금제를 ‘신지(神事)에 바탕을 두는 스모의 전통’이라고 하였고, 내관(2006)은 도효가 신성한 성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통 고수를 주장하였다(2010:357-358).”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女人禁制란 여성에 대해 특정한 장소에 출입을 금하는 것을 뜻한다. 특정한 장소란 신사나 사찰 신토에서 제사지내는 곳, 그리고 산악지대 등을 말한다(구니이 유타카, 2010:358).” 구니이 유타카(2010:358-359)는 이러한 여성금제의 발생요인에 대하여 네 가지, 즉 “첫째, 피의 게가레(穢れ)에 대한 부정관(不淨觀), 둘째 불교의 계율을 적용, 셋째 불전(仏典)에서 볼 수 있는 여성멸시사상, 넷째 일본민속의 본질에 뿌리박한 것”이라고 하였다. “生沼(2007)의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국기관을 찾아온 사람들 중 약 70%가 도효의 여인금제의 전통을 지지한다고 하였다(구니이 유타카, 2010:358).”

그러나 일본의 史書에서는 스모(相撲)에 대한 여성금제를 찾기가 어렵다. 오히려 문헌상으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여성의 스모(相撲; 日本書紀 14권 雄略天皇十三年)였다. 그렇다면 여성 相撲의 금지는 언제, 무슨 이유로 생겼을까? 이에 대하여 합병즈모(合併相撲)와 관련하여 金田英子(1993:97-99)는 “합병즈모란 여성과 맹인이 함께 스모경기를 펼치는 것을 말하며 스모를 하다가 성행위를 보여주기도 했다. 에도막부는 합병즈모가 풍기를 문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이를 단속하기 시작하여 1769년과 1872년 두 차례에 걸쳐서 합병즈모 금지령을 내렸다(구니이유타카, 2010:367).”고 하였다.

(2) 相撲에서의 여성의 역할

相撲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은 크다. 相撲部屋는 “오야카타를 중심으로 리키시들이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이며 리키시의 교육과 관리가 이루어지는 리키시 양성소라고 할 수 있다(구니이 유타카, 2009:165).” 이곳에 있는 “오카미상(內儀さん)은 오야카다의 부인을 가리키는 말이며 리키시의 의식주에 관한 일들을 책임지고 있다. 유카타를 만들거나 이불을 말리는 일상적인 일부터 후원회를 관리하는 일까지 스모베야를 위해 그늘에서 진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구니이 유타카, 2009:166).” 따라서 相撲에서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 相撲에 관한 중국의 기록은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國家體育委武術研究院編纂(1997)은 “삼국시대의 각저는 새로운 면모를 보였는데 여자 각저(角抵)가 탄생되었다. 특히 여자들이 하는 각저(角抵)는 남자 力士들보다 호화로웠다(송일훈・김산, 2008:110).” 고 기술하고 있다. 중국 송나라 때 여성 스모의 모습이 山西晋城南社에서 출토되었는데, “특이한 점은 여자 力士들이 가면을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체 복장이 일본 스모(相撲)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송일훈・조충현・안진규, 2008:16).”

일본 혹은 중국의 문헌을 통해 여성 相撲을 정리하면 남성과 달리 여성 相撲은 화려하며 또 성적 문란의 경향이 엿보이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진정한 스포츠로써의 相撲’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측면과 ‘신성한 의미’를 잃게 될 가능성이 있어 여성 相撲은 스포츠나 무도의 측면으로는 발전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추론한다.

3) 제의와 공연적 성격을 지닌 相撲 : 皇極天皇 元年(642년)

다음 내용은 相撲이 제의적 성격과 연회를 위한 공연이라는 두

가지 입장을 지니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A. 일본서기 24권 皇極天皇 원년 5월 21일-24일(서기 642년)
(六四二) 五月乙亥【二十一】》乙亥。翹岐의 從者 한사람이 죽었다.(六四二) 五月丙子【二十二】》丙子。, 翹岐의 아이가 죽었다. 이때 翹岐와 처가, 아이가 죽은 것을 두려워하고 꺼려, 장사에 나가지 않았다. 무릇 百濟와 新羅의 풍속은 사망자가 있을 때에는 부모 형제 부부 자매라 하더라도 스스로 보지 않는다. 이것으로 보면 몹시 자애가 없어 금수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
(六四二) 五月丁丑【二十三】》丁丑。 벼가 벌써 익은 것이 처음으로 보였다.
(六四二) 五月戊寅【二十四】》戊寅。 翹岐가 처자를 데리고, 百濟 大井의 집으로 옮겼다. 사람을 보내 죽은 아이를 石川에 장사지냈다(참고: 田溶新, 2002:418).[7]

B. 일본서기 24권 皇極天皇 원년 7월 22일(서기 642년)
百濟의 사신 大佐平 智積들에게 조정에서 향응 하였다.〈或本에, 百濟의 사신 大佐平 智積 및 아들 達率(이름이 빠졌다), 恩率軍善이라 한다.〉 健兒에 명하여, 翹岐(교기, 백제 의자왕의 조카로 아버지가 의자왕의 아우 642년 섬으로 추방되어 일본으로 건너감)의 앞에서 相撲을 시켰다. 智積들은 연회가 끝나고 물러나서 翹岐의 문전에서 배례하였다(참고: 田溶新, 2002:418).[8]

---

7) 日本書紀 卷第二十四
《皇極天皇元年（六四二）五月乙亥【二十一】》乙亥。翹岐從者一人死去。
《皇極天皇元年（六四二）五月丙子【二十二】》丙子。翹岐児死去。是時翹岐与妻、畏忌児死。果不臨喪。凡百済。新羅風俗有死亡者。雖父母·兄弟·夫婦·姉妹。永不自看。以此而観。無慈之甚。豈別禽獣。
《皇極天皇元年 (六四二) 五月丁丑【二十三】》丁丑。熟稻始見。
《皇極天皇元年 (六四二) 五月戊寅【二十四】》戊寅。翹岐將其妻子。移於百濟大井家。乃遣人葬兒於石川。(朝日新聞社本 日本書紀, 日本文學電子圖書館)

8) 日本書紀 卷第二十四 皇極天皇元年（六四二）七月乙亥【二十二】乙亥。饗百濟使人大佐平智積等於朝。<或本云。百濟使人大佐平智積及兒達率。闕

(1) 제의적 성격을 지닌 相撲

기록된 내용 중 B의 것만 보면 일본 조정에서는 백제 사신 大佐平 智積 등에게 향응을 베풀었고, 健兒(健兒)들에게 명하여 相撲을 하게 하여 즐겨보았다는 내용이 된다. 그러나 여기서 翹岐에 주목하여 앞의 기록(A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翹岐는 백제 의자왕의 조카로 왕족이다. 그는 5월에 이미 일본에 있었다. 21일 하인이 죽고 다음날인 22일에는 翹岐의 아이가 죽었다. 그런데 아이가 죽은 것을 두려워하여 보지 않았다. 24일 翹岐가 처자를 데리고 百濟 大井의 집으로 옮기고 죽은 아이를 石川에서 장사를 지냈다.

이 기록을 생각하며 다시 B의 내용을 살펴보자. 5월에 중순에 翹岐의 하인과 아이가 죽었는데 7월 22일 일본 조정에서 백제사신 대좌평 등이 온 것을 환영하기 위해 백제 왕족인 翹岐도 불러 그들을 융숭하게 대접하고 翹岐 앞에서 相撲경기를 시켜 관람하게 하고 잔치를 크게 벌였다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왜 하필 翹岐(죽은 아이의 아버지, 백제의 왕족) 앞인가? 여기서 백제 왕족인 翹岐 앞에서 相撲을 하였다는 것에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고구려의 각저총 무덤 내부의 씨름그림의 의미에 대하여 김효경(2003:10)은 “처음부터 씨름그림은 죽은 자를 위한 그림이라는 한계를 지닌다.”고 하였다. 그리고 Uno Harva/田中克彦(1971:301)의 연구, 즉 “돌궐계의 민족들에서 장례를 행할 때에 장례 씨름만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경마와 함께 서행된다는 것이다(김효경, 2003:

名。恩率軍善。> 乃命健兒、相撲於翹岐前。智積等宴畢。而退、拜翹岐門。(朝日新聞社本 日本書紀, 日本文學電子圖書館)

15).”라는 글을 옮겨 씨름과 장례행사의 연관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장례의식은 처음에는 곡을 하며 죽은 사람을 애도하지만 마무리 의례는 피리를 불고 북과 장구를 치는 등 일종의 축제행사를 연상하게 하면서 죽은 이를 떠나보낸다.

일본서기(일본)에서 捔力(相撲 포함)은 垂仁天皇(기원전 23년)에서도 当麻蹶速와 野見宿禰의 직업이 모두 장례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 相撲은 장례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당시 이웃나라(한국, 중국 등)의 씨름은 장례와 관계가 깊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2) 공연적 성격을 지닌 相撲

“씨름의 기원은 정확하지 않으나 전 세계 어디서나 찾아 볼 수 있다(최종균・허건식, 2012:65).” 고대 씨름은 이집트문명(피라미드의 벽화)에서나 우리나라 고구려 고분벽화 등에서 살펴보면 대부분 제의적 성격과 관련이 있다. 그렇다고 제의적인 측면에만 관심을 둘 수는 없다. 고대의 많은 史料에서 장례와 연관이 되어 있지만 축제분위기를 만들고 특히 국외 인사들을 위한 공연(환영과 환송의 행사)의 의미가 또한 크다.

“한 왕조 시대에는 각저(角抵)를 포함한 많은 오락 활동은 초대한 외국사절에게 보여주는 것이 예의였다. 즉 염철론・숭례(鹽鐵論・崇禮)에는 한소제(漢昭帝)가 각저희(角觝戲) 경기를 외국 사절에게 보여주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전형적인 행사에 참여한 일본의 사신은 돌아가서 각저희(角觝戲)를 즐겼을 지도 모른다. 즉 1963년 이마무라 요시오(今村嘉雄)가 집필한 일본체육사자료연표(日本體育史資料年表)에는 일본의 고대 스모(相撲)가 처음 출연한 것은 BC 23년이라고 하였는데, 이때는 서한시대 말기이다(송일훈・김산, 2008:111).”

이와 관련하여 後漢書 東夷傳 夫餘國條에 '136년(順帝 永和元年)에 부여 왕이 후한 서울(京師)에 갔을 때 황제(順帝)가 내시(黃門)로 하여금 북치고 피리를 불며 각저희(角抵戲)를 하게 한 다음 부여왕을 보냈다.'[9]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저희(角抵戲)는 귀족들의 놀이문화로써 당대에 매우 인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相撲은 왕족과 연관이 깊은 축제문화이며 국가대사의 클라이맥스(Climax)행사였다. 특히 외국사절단의 환영과 환송을 위한 볼거리제공(관람경기)으로 작용하고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본서기의 기록에서 제의적 성격과 향응을 위한 축제적 관람경기의 성격을 동시에 생각해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김용의(2013)는 천황이 관람하는 스모, 즉 '天覽相撲'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고대 역사서인 日本書紀에서는 후대[10]에 있었던 것처럼 큰 행사(향연과 의례 등)로서의 '天覽相撲'이 아닌 '소규모' 혹은 '지나가다가 잠시 보는' 그런 내용들이었다. 그러나 김용의의 주장처럼 이때(고대, 일본서기에 기록된 천황시대)에도 천황이 보았으므로 天覽相撲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당시에도 이미 相撲은 공연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天覽相撲에 관해서 다음의 持統天皇 九年(695년) 5월 21일의 내용에서 부가로 설명한다.

4) 隼人 경기로써의 相撲 : 天武天皇 十一年(서기 682년, 695년)

(1) 隼人의 지역경쟁으로써 相撲 : 天武天皇 十一年(서기 682년)

---

9) 後漢書 東夷傳 夫餘國條 : 順帝 永和元年 其王來朝京師 帝作黃門鼓吹 **角抵**戲以遣之

10) "근대 이전의 천람스모는 주로 일본 헤이안(平安) 시대(784~1185)에 거행된 스모세치에(相撲節會)가 대표적이다. 세치에(節會)란 천황이 절일(節日)이나 중요한 의례를 행할 때에 신하들을 궁중으로 불러들여 벌인 연회를 말한다(김용의, 2013:39)"

일본서기에는 어떻게 승부가 결정되는지는 기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隼人의 相撲에 대한 기록이 있다.

> 일본서기 29권 天武天皇 十一年 7월 3일(서기 682년)
> 隼人이 많이 와서, 지방특산물을 바쳤다. 이날, 大隅의 隼人과 阿多의 隼人이 조정에서 相撲를 하였다. 大隅의 隼人이겼다(참고; 田溶新, 2002:545)[11].

여기서 말하는 隼人(はやと)은 古代, 九州(きゅうしゅう) 남부의 薩摩(さつま)・大隅國(おおすみ; 鹿兒島縣현 일대) 등지에 살았던 소수민족으로 용맹・기민한 사람들이다.[12] 이들이 方物(지방특산물)을 조정에 바치고 서로 간에 相撲경기를 하였고 大隅의 사람들이 이겼다는 내용이다. 즉 지역별 단체전으로 相撲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김동규・신명수(1990:3)는 "相撲은 日本에서 스모라고 하는데 古代 中國의 百戱의 하나로 여러 力士들을 모아 힘을 겨루어 상대방을 모두 넘어뜨린 사람이 이기는 놀이이며[13] 角力은 두 사람이 서로 잡고 힘과 재주를 부려 먼저 넘어뜨리는 사람이 이기는 놀이이다."라고 하였는데, 이 내용에 따르면 相撲은

---

11) 日本書紀 卷第二十九 天武天皇 十一年 (六八二) 七月甲午【三】 秋七月壬辰朔甲午、隼人多來貢方物。是日。大隅隼人与阿多隼人、相撲於朝廷。大隅隼人勝之。(朝日新聞社本 日本書紀, 日本文學電子圖書館)

12) "隼人 (はやと) とは、古代日本において、薩摩・大隅 (現在の鹿兒島縣) に居住した人々。はやひと (はやびと) 、はいととも呼ばれる。風俗習慣を異にして、しばしば大和の政權に反抗した。やがてヤマト王權の支配下に組み込まれ、律令制に基づく官職のひとつとなった。兵部省の被官、隼人司に屬した。百官名のひとつとなり、東百官には、隼人助 (はやとのすけ) がある。現在は、日本人男性の人名としても用いられる(http://ja.wikipedia.org)。"

13) 이 내용은 이 연구의 앞부분에서 기술한 한양명(2000:242)의 사례연구, 즉 '1930년대 경북 달성군 유가면 음리 일대의 여성씨름'의 '지워내기'방식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고 일종의 단체전과 흡사하다.

많은 사람들과 겨루는 것이며 捔力은 1대1의 경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相撲은 단체경기 혹은 최고의 一人을 뽑는 경기라는 의미를 가지며 또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즉흥적이라기보다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경기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捔力은 즉각적이며 흥미위주로써 즉흥적인 경기라고 볼 수 있다.

(2) 隼人의 유희로써 相撲 : 持統九年(695년)

持統천황 재위 9년 5월 13일에 隼人 大隅에 향응을 베풀었고 5월 21에 隼人 大隅이 相撲을 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隼人은 相撲을 하는 것을 즐겨하여 조정에 와서도 相撲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본서기에서 相撲은 천황과 계속하여 관련이 되어 나온다. 이로써 일본서기에서 相撲은 천황과 오랜 기간 동안 깊은 고리를 이어옴을 증명하고 있다.

> 持統九年 5월 서기695년)
> 13일 隼人大隅에 향응을 베풀었다.
> 21일 隼人이 相撲하는 것을 서쪽 槻木(느티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田溶新, 2002:589).[14]

"한말 위초(魏初) 사람인 소림(蘇林)이 주를 한 한서·애제기(漢書·哀帝紀)에는 수박(手搏)과 각저(角抵)를 따로 부르는 것을 엿볼 수 있다(송일훈·김산, 2008:111)." 즉 수박과 각저는 서로 다른 류(類)이다(漢書 卷十一 哀帝紀 第十一 : 雅性不好聲色 時覽卞射武戲 應劭曰: 卞射 皮卞而射也 蘇林曰: 手搏爲卞 角力爲武戲也). 그

14) 日本書紀 卷第 三十
《持統九年（六九五） 五月己未【十二】》 五月丁未朔己未。饗隼人大隅。
《持統九年（六九五）五月丁卯【二十一】》丁卯。觀隼人相撲於西槻下。
(朝日新聞社本 日本書紀, 日本文學電子圖書館)

리고 “각저(角抵)는 주로 오락용과 동시에 상대와 겨루기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간 및 궁정에서도 행하여졌다. 그것은 춘추전국시대의 격투무예 각력(角力)을 계승한 것이다. 특히 진나라 전에 각저(角抵)와 같은 활동이 이미 있었고 다만 이에 대한 어원은 진나라 때 각저(角抵)라고 하였다(송일훈・김산, 2008:110).” 이러한 용어들을 검토해보면 角抵는 相撲과 유사하다. 여기에서 언급되는 角力은 手搏과 拳처럼 격투무술의 형태를 가진다. 일본서기의 捔力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시황(秦始皇)은 전국을 통일한 후 민중의 반란을 두려워하여 민간에서의 무기의 소지나 무술훈련 등을 금지시켰다. 그래서 군사훈련 수단으로서의 씨름(角抵)이 궁중에서 벌어지는 오락 활동으로 전락되었다. 진나라 이세(二世) 호해(胡亥 BC 209-BC207)는 승상 이사(李斯)가 중요한 문건을 감천궁(甘泉宮)으로 가져와 고(告)하려 하였으나 왕이 씨름(穀抵) 보는데 정신이 없어 뵙지를 못하였다는 기록을 통해 호해가 얼마나 씨름을 좋아했는지 가늠할 수 있다(鄭然鶴, 1996:654-655).” 이에 대하여 林伯源(1994)은 “진대의 각저(角抵)는 주로 신체・유희적 요소와 함께 민간보다는 궁중에서 흥행되었다(송일훈・김산, 2008:110).”고 설명하고 있다. 이 내용에서 진시황은 군사훈련의 수단으로 각저(角抵)는 허락하고 나머지 무술훈련을 금지시켰다고 한다. 이로써 角抵는 군사훈련용이며 穀抵는 일종의 오늘날 스포츠에 해당되며 군사훈련(무술)과는 차이가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이 경기는 궁중에서 벌어졌고, 그의 아들 호해왕은 이 경기(穀抵)를 무척 좋아하여 정사를 등한시 하였다고 한다. 이 기록은 史記의 李斯傳의 내용이며 이 책에서는 角抵를 穀抵로 표기를 하고 있다. 진시황의 아들 호해가 穀抵를 본다고 정사를 등한시 하자 한의 유방(劉邦 BC 209-BC 295)은 穀抵를 금지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의 아들 무제(武帝) 때는 더욱 성행하였다(鄭然鶴, 1996:665).”고 한다.

이상의 중국 기록을 정리하면 相撲은 穀抵와 같은 류이며, 일본서기의 捔力와 달리 중국의 角抵는 手搏과 拳勇 등과 흡사하다. 이것은 일본서기에 처음 기록된 相撲관련 용어 검토의 捔力의 개념(이 연구의 2-1))과 같다. 즉 軍營에서 勇士를 불러들여 힘이 세다고 오만방자한 力士를 발로 차서 늑골을 부러뜨리고 허리를 밟아 죽게 하였던 천황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이때(相撲이란 용어가 나오기 전 시대)는 相撲보다 捔力이 천황가의 위엄을 지켜주고 한편으로는 호위무사의 입장에서 그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5) 相鬪에 대하여 : 雄略天皇 七年 8월 8일(464년)

雄略天皇 七年(癸卯四六三 八月)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이 기록에서는 相撲대신에 相鬪란 단어가 등장한다.

> 雄略天皇 七年 8월 8일(464년)
>
> 舍人 吉備弓削部虛空이 갑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吉備下道臣前津屋〈或本에 國造吉備臣山이라 하였다.〉은 虛空을 머무르게 하여 심부름을 시켰다. 달이 지나도 京都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天皇은 身毛君丈夫를 보내 불렀다. 虛空이 부름을 받고 와서, "前津屋이 小女를 天皇의 사람으로 하고, 大女를 자기 사람으로 하여 경쟁하여 서로 相鬪(서로싸우게)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린 여자가 이기는 경우는 칼을 빼어 죽입니다. 또 작은 수탉을 天皇의 닭이라 불러 털을 뽑고 날개를 자르고, 큰 수탉을 자기의 닭이라 부르며 방울, 쇠붙이를 달아 주고, 경쟁하여 싸우게 합니다. 털을 뽑힌 닭이 이기는 경우는 또 칼을 뽑아 죽입니다"라고 말하였다. 天皇이 이 말을 듣고, 物部의 兵士 30인을 보내 前津屋 등 70인을 죽였다(참고: 田溶新, 2002:239).[15]

---

15) 日本書紀 卷第十四《雄略天皇七年（癸卯四六三）八月》八月。
官者吉備弓削部虛空、取急歸家。吉備下道臣前津屋<或本云。國造吉備臣山。> 留使虛空。経月不肯聽上京都。天皇遣身毛君丈夫召焉。虛空被召來

이 문헌기록의 相闘란 용어는 相撲보다 시대적으로 먼저 나왔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사람이 할 경우는 (競令)相闘라 하였고 동물이 할 경우는 (競令)闘之라 하였다. 글자 해석으로 보면 相撲이나 相闘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 문헌의 相闘 용어는 여성 相撲과 같은 맥락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일본서기에는 相撲이 4회, 捔力이 1회 기록된 점에서 相闘라는 용어의 등장은 의미가 있다. 특히 相撲문화가 정립되지 않은 당시에 여성들에게 相闘를 시켰다면 여성 相撲 혹은 그 모체(母體)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여성들이 하였던 相闘를 相撲으로 대입하여 설명하여도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 용어를 相撲라고 단정하기에도 문제는 있다. 그러나 이들의 행한 형태는 相撲란 용어가 나오기 전의 '놀이형식의 여성 씨름'임은 분명하다.

3. 결론

일본서기에서 相撲과 관련된 용어는 5회 기록에 그치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매우 간략하다. 그렇다고 이러한 내용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파편적인 자료들을 엮어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글자 한 자에도 정확하고 깊이 있게 연구하는 구체적인 미세작업도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相撲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한국・중국・일본 3국의 古文史料들을 서로 비교하여 검토하고 더불어 유물유적을 함께 이

言。前津屋以小女爲天皇人。以大女爲己人。競令相闘。見幼女勝。卽拔刀而殺。復以小雄鷄、呼爲天皇鷄。拔毛剪翼。以大雄鷄、呼爲己鷄。著鈴・金距。競令闘之。見禿鷄勝。亦拔刀而殺。天皇聞是語。遣物部兵士三十人。誅殺前津屋幷族七十人。(朝日新聞社本 日本書紀, 日本文學電子圖書館)

용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3국에 분포한 유물유적이나 고대 문헌자료는 연관성이 많기 때문이다.

한편 고대 사료들은 그 양이 매우 방대하며 설화적 요소(정사보다 유사적 기록) 또한 많아 다양한 각도의 學際間研究(Interdisciplinarity)가 요구된다. 이 연구는 이러한 의미에서 스모(相撲) 용어의 첫 등장 史書인 일본서기를 출발선으로 하여 여러 문헌들을 비교·고찰한 것이다. 우리 씨름의 발전과 우리 체육문화의 역사적 정체성을 위해 스모(相撲)와 같은 이웃나라의 문화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많은 사료들을 끌어 모아 서로 비교하면서 연구하는 연관연구(후속연구)가 계속하여 이어지길 기대한다.

다음 내용은 이 연구의 정리 및 결론이다. 그리고 향후 진행되어야 할 후속담론도 제시하였다.

일본서기에는 捔力이 1회, 相撲이 1회 기록되어 있으며, 한편 相闘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해석상 문제가 없고 相撲문화보다 먼저 나온 용어라는 측면에서 相撲과 같은 개념으로 보아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또한 勇士와 力士의 단어가 있었는데 이 단어들은 고대 중국과 한국의 사료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力士는 相撲경기의 선수를 의미하고 勇士는 手搏과 같은 경기의 선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일본서기에 기록된 相撲과 관련된 용어의 출처는 捔力이 6권, 相撲이 14권, 24권, 29권, 30권, 相闘가 14권, 勇士는 19권, 28권이었다. 그리고 勇士와 力士가 같이 나오는 곳은 6권이었다.

일본서기에 나오는 相撲은 오늘날 일본의 스모(すもう)의 전신으로 한국의 씨름과 비슷하다. 즉, 흥이나 기술을 볼 수 있는 관람경기에 비유할 수 있어 한국의 씨름(角抵, 중국의 角抵)과 같은 류

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서기에 처음 나오는 각력(捔力)은 手搏이나 拳과 같은 것으로써 무사나 전사(군인)가 생사를 걸고 온갖 잡 기술을 구사하는 이종격투기 MMA(MIXED MARTIAL ARTS) 즉 그래플링(Grappling)에 비유할 수 있는 격투기 혹은 종합무술과 같은 맥락이다.

일본서기에 따르면 고대 일본에서는 여성들도 相撲을 하였다. 특히 중국에서는 여성 相撲이 남성들보다 더 화려하였다는 사료도 있다. 비록 여성 스모(相撲)에 대하여 일본서기에서는 한 군데만 기록되어 있지만 중국문헌에서는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일본에서 여성 相撲을 못하게 하는 것은 古代의 相撲문화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相撲은 여러 力士들이 힘을 겨루어 상대방을 모두 넘어뜨리는 경기이며 捔力은 두 사람이 힘과 재주를 부려 넘어뜨려 이기는 경기라는 주장은 의미가 있어 재확인해 볼 후속 연구과제로 남긴다. 일본서기에서 相撲보다 먼저 나오는 捔力은 유희의 일종이지만 격투기와 비슷한 류로 간주된다.

일본서기에 기술된 相撲은 왕족을 위한 공연적(관람성)인 경기가 있었다. 이것은 내용이 빈약하여 정확한 이론으로 정립하지 못하지만 두 가지의 의미는 가능하다. 첫째, 장례행사로써의 의의와 둘째, 공연행사로써의 입장이다. 이 두 가지 유형에 대한 내용은 고대 중국과 한국에서 모두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일본서기의 相撲과 관련한 공연과 제의적 성격은 고대 중국이나 한국의 입장에서 비교 및 대입하여 모두 긍정적인 해석이 나온다. 그러므로 이 당시에 이미 일본에서는 相撲문화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日本書紀
禮記
孟子
公羊傳
漢書
後漢書
구니이유타카,「스모베야(相撲部屋)에 있어서의 이에(家)제도에 관한 고찰: 스모베야 사제관계를 중심으로」,『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일본언어문화』15, 2009, p. 166.
구니이유타카,「스모(相撲)에 있어서의 여인금제(女人禁制)에 관한 고찰」, 日本文化,『일본언어문화』17, 2010, pp. 358-367.
김동규・신명수, 中國 朝鮮族 씨름의 史的 背景과 特徵,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인문연구』11-2, 1990, p. 3.
김용의,「일본 스모(相撲)의 국기(國技) 정착과 천황의 관람」,『비교민속학』51, 비교민속학회, 2013, p. 39.
김효경,「씨름의 사회사: 역사적 변천을 중심으로」,『한국민속학』37, 한국민속학회(구 민속학회), 2003, p. 10.
박창기),「일본 신화와 신의 진실」,『일본어문학』39, 한국일본어문학회, 2008, p. 475.
성은구,『일본서기』, 서울: 고려원, 1987.
송일훈・이동헌・손수범,「민속 씨름과 일본 스모(相撲)의 유래 및 경기방식과 대회운영에 관한 비교 연구」,『체육사학회지』17, 2006, p. 90.
송일훈・김산,「한・중・일 격투무예의 어원 및 기원에 관한 연구(2): 고대 중국의 원시시대부터 진한삼국시대를 중심으로」,『체육과학연구』19-4, 체육과학연구원, 2008, pp. 110-111.
송일훈・조충현・안진규,「韓・中・日 格鬪武藝(手搏・相撲・相撲・角抵)에 關한 硏究: 古代 中國 魏晉南北朝時代부터 明淸時代 中心으로」,『한국체육학회지』47-4, 2008, p. 16.

田溶新,『완역 일본서기』, 서울: 일지사, 2002.
鄭然鶴,「출토문물을 통해 본 중국의 씨름과 手搏」,『비교민속학』 13, 비교민속학회, 1996, pp. 654-655.
최정선,「고대 한・일 가요의 전승과 변이에 관한 비교연구: 풍요와 日本書紀 노동요를 중심으로」,『고시가연구』 16, 한국고시가문학회, 2005, pp. 26-27.
최종균・허건식,「고대 한국・일본의 문화교류에 나타난 일본 스모(相撲)에 관한 연구」,『한국체육사학회지』 17-2, 2012, p. 65.
한양명,「전통씨름의 대동놀이적 성격에 관한 연구」, 『비교민속학』 18, 비교민속학회, 2000, p. 242.
寒川恒夫,「한일 씨름과 일본스모의 비교 : 葬禮스모의 계보」,『중앙민속학』 5, 중앙대학교 한국문화유산연구소(구 중앙대학교 한국민속학연구소), 1993, pp. 45-59.
國家體育委武術研究院編纂/編纂委員; 馬明達・習云太・劉方春,『中國武術史』, 1997, 北京 : 人民體育出版社.
金田英子, 「興行としての女相撲に關する研究」, 『日本体育大學紀要』 22-2, 1993, pp. 97-99.
小島憲之・西宮一民・毛利正守・直木孝次郎・藏中進,『日本書紀 1 : 新編日本古典文學全集(2)』, 1996, 東京 : 小學館.
小島憲之・西宮一民・毛利正守・直木孝次郎・藏中進,『日本書紀 2 : 新編日本古典文學全集(3)』, 1996, 東京 : 小學館.
林伯源,『中國武術史』, 1994, 北京 : 北京體育大學出版社
Uno Harva/田中克彦, 『シャマニズム : アルタイ系諸民族の世界像』, 1971, 東京 : 三省堂.
朝日新聞社本, 日本書紀, 日本文學電子圖書館 ; http://www,j-texts,com
위키백과 ; http://ko.wikipedia.org
http://ja.wikipedia.org/wiki/%E9%9A%BC%E4%BA%BA

A Study on Sumo in *Nihonshoki*

Joo, Dong-Jin

Sumo is the representative traditional sport of Japan. It contains history and soul of Japan, for which the Japanese take much pride. However, though Sumo is the Japan's best national sport, studies on Sumo in ancient times are not sufficient. The term, Sumo, first appeared in *Nihonshoki*, in which a lot of folktales are recorded. Therefore, we are able to understand the life and way of thinking of people at that time by way of using our imagination. And this book has quite a few distortions and embellishments. Additionally, nearly one half of this book constitutes the recordings on ancient Korea. Thus, this study on Sumo through *Nihonshoki* provides us with an opportunity of investigating Korean history and Ssireum. Especially, it possibly functions as a stepping stone for establishing the identity of our Ssireum and for comparative (international) physical education. The full text of *Nihonshoki* is scrutinized to achieve the goal of this study. It is anticipa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full of suggestions for both the history of Sumo and Korean Ssireum.

Key words: *Nihonshoki*『日本書紀』, Sumo(相撲), Sumo wrestlers(力士)

주동진
소속: 영남대학교 한자문화연구소 연구원(영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체육학부)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 시지효성백년가약 아파트 104동 1006호
전화번호: 010-3181-8848
전자우편: sport@ynu.ac.kr

이 논문은 2013년 10월 31일 투고하여
2013년 12월 09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3년 12월 31일 게재 확정함.